

베트남 씨감자 시설지원 사업 현지 평가회 및
심포지엄 참석 출장 보고서

2008. 11

제출자: 정기환
농촌발전연구센터

I.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강원대와 베트남 하노이농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가공용 씨감자 생산시설 및 기술지원사업에 대한 현지 평가 및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한국과 베트남간 농업분야 국제협력 가능성과 전망에 대한 주제 논문을 발표하고 향후 베트남 측과의 농업분야 협력 가능성 타진 및 씨감자 생산 현장 시찰
2. 출 장 자: 농촌발전연구센터 초빙연구위원 정기환
3. 출장기간: 2008. 11..2 ~ 11. 8(5박 7일)
4. 출장지역: 베트남 호치민, 달라트, 하노이
5. 출장 일정

월일	시 간	내 용
11/2(일)	오후	· 출발 (인천-호치민)
11/3(월)	오전	· 호치민 소재 감자 가공 공장(오리온) 시설 시찰
	오후	· 호치민 소재 농남대학의 축산 시설 견학 및 협력 가능성 협의
11/4(화)	오전	· 이동 (호치민-달라트)
	오후	· 씨감자 생산 농장 현지 방문
11/5(수)	오전	· 씨감자 농장 방문
	오후	· 이동 (달라트-하노이)
11/6(목)	전일	· 심포지엄 개최 (하노이농업대학)
11/7(금)	오전	· KOICA 방문 향후 협력 방안 협의
11/8(토)	오전	· 한국 도착

II. 출장 결과

- 이번 출장은 강원대가 농림수산식품부의 용역으로 추진하는 베트남 가공용 씨감자 생산 시설 및 기술지원사업에 대한 현지 평가 및 심포지엄이 참석하여 한국과 베트남간 농업분야 국제협력 가능성과 전망에 대한 주제 논문을 발표하고 향후 베트남 측과의 농업분야 협력 가능성 타진 및 씨감자 생산 현장을 시찰하기 위함이었음.
- 한국의 식품가공 회사인 오리온은 베트남에 진출하여 감자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가공용 씨감자의 확보가 어려워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기에 베트남 하노이 농업대학에 가공용 씨감자 생산시설을 지원하고 증식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가공용 씨감자의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음.
- 이번 출장을 계기로 오리온의 베트남 가공식품 생산 현장에 대한 시찰과 달라트의 씨감자 생산포장을 시찰하고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향후 한국과 베트남간의 농업분야 협력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었음.
- 베트남의 달라트는 연중 기온이 온화한 지역으로 베트남에서 유일하게 아열대성 작물과 온대성 작물 재배가 가능한 지역으로 감자를 비롯해 화훼, 커피, 과수가 발달한 지역임.
- 이러한 기후적 장점을 이용하여 대만, 중국, 일본, 유럽 등지의 자본이 진출하여 화훼, 블루베리, 감자, 커피 등 현금작물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임.
- 오리온은 달라트 지역에 바이러스 감염이 안된 씨감자를 생산하는 기지로 활용하고자 50ha 규모의 농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달라트 지역과 북부의 량선 지역에 씨감자 생산을 위한 농장 규모를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
- 베트남은 세계2위의 돼지 두수를 확보하고 있는 국가로 향후 돈육에 대한 수요가 크게 신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와 같은 전망에 따라서 다비육종 등 국내 양돈업계가 진출하여 베트남에서 종돈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양돈업계의 대 베트남 종돈 보급과 관련하여 양돈기술 교육 등 분야에서 국제협력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됨.

○ 한국대사와의 면담(2008. 11. 5.)

- 주 베트남 한국대사와의 석식을 겸한 면담과정에서 2001-2002 기간 중에 KOICA의 지원 하에 KREI가 실시한 새마을운동 시범사업의 결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음.
- 출장자는 KREI가 2001-2002 기간 중에 실시한 시범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베트남 정부가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채택한 것이 큰 성과임을 강조하고 이에 대해서 KOICA가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함을 강조하였음.

○ 가공용 씨감자 생산시설 및 기술지원사업에 대한 현지 평가 및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향후 한베간의 국제협력 가능성에 대해 주제 발표(발표 자료 별첨)



하노이농업대학에서 개최된 심포지엄